

애착이 자기대상욕구를 매개로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신 문 혜¹⁾

이 지 연²⁾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애착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대상욕구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304명이 참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은 자기대상욕구-갈망과 자기대상욕구-회피 그리고 내재화 문제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애착회피는 자기대상욕구-회피, 내재화 문제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대상욕구-갈망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자기대상욕구-갈망, 자기대상욕구-회피와 내재화 문제가 높아지며,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자기대상욕구-회피와 내재화 문제는 높아지고 자기대상욕구-갈망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대상욕구와 내재화 문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자기대상욕구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냈다. 둘째, Baron과 Kenny (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대상욕구는 애착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대상욕구와 애착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안정 애착이 병리적인 자기대상욕구와 관련되어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대상 경험을 어렵게 하고 내재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기대상욕구와 애착에 대한 접근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애착, 자기대상욕구, 내재화 문제, 우울, 청소년

1)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

2) 교신저자 :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 (E-mail : becoming@incheon.ac.kr)

I. 서론

청소년 시기는 과도기적 발달특성으로 많은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특히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며 작은 비난에도 심한 분노와 변명을 보이고 높은 자의식으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될 경향이 높아 이로 인한 자기 불일치를 경험하면서 우울감에 쉽게 빠져든다(양선미, 2008). 즉,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은 어느 정도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므로(Erikson, 1963) 청소년 시기는 우울에 취약한 불안정한 시기이다(조혜수, 2011). 따라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리적 장애로 인한 것인지 혹은 발달과정상 나타나는 불안정한 특성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로부터의 높은 기대로 인하여 예민하고 위축되어 죄책감, 자기비하, 자아존중감 저하 등의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김은정, 오경자, 1992). 따라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심리적 장애에 관한 지식, 경험과 더불어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Achenbach와 Edelbrock(1983)는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우울, 불안, 위축, 신체적 증상 등의 내재화 문제와 비행, 공격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부적응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학교를 포함한 둘 이상의 환경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장애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적응에 대한 정의는 입장과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르며, 심리적 부적응 중에서 위축, 우울/불안, 비

행은 청소년 문제와 관련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김유진, 2009). 우울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적응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증상으로 문제 행동과 많은 관련성을 나타낸다(심혜원, 1999). 그리고 불안은 억압된 분노와 정적 상관을 보여준다(Beck, 2000). 관련연구에서 우울/불안,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는 외재화 문제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고,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불안과 연관되면서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였다. 또한 가족 내 부모 갈등, 부정적 가족 유대감 등은 청소년의 우울, 불안, 위축 등을 증가시켰으며(김성수, 2011; 이은주, 2011),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 증상은 가족 및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기술 습득을 방해하면서 다시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오경자, 강지현, 하은혜, 송동호, 2004). 그리고 청소년의 우울/불안, 사회적 위축의 내재화된 심리적 부적응이 방치될 경우에는 비행이나 폭력행동, 자살시도, 신체화 등의 외현화 문제로 이어졌으며 이는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요소가 되었다(김영미, 2011). 위 연구결과들은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보다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과 더 관련이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불안, 위축으로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우울/불안, 위축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성장과정에서 형성되어 사회적 관계에까지 지속적인 큰 영향을 주는 초기 주 양육자와의 애착(attachment)을 들 수 있다(유한익, 2004).

Bowlby(1969)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정한 애착패턴을 지니게 되고, 건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정신 병리적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경우에 양육자가 안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게 되고 과민하고 자주 불안을 경험하는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되면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성인기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채영이, 2006). 관련연구에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청소년의 품행장애, 주의력 장애, 성적문제, 우울증, 약물남용, 자살 등에 취약함을 보여주었다(이소희, 2001). 또한 불안정한 애착은 우울과 관련을 보이면서 자기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청소년 일수록 내재화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었다(이소희, 2001). 불안정 애착의 청소년들은 아동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부재 및 접근 불가능’이, 청소년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의사소통 단절’이 특징으로 나타났다(이시은, 2003). 더불어 부모의 불안정 애착유형도 자녀의 자기가치감과 불안, 우울에 영향을 주면서 자녀의 내재화, 외재화 문제와 관련되었다(유한익, 2004).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혜진, 2013)에서도 애착이 불안정 할수록 자살사고, 우울, 사회불안 수준이 높아졌고, 애착불안은 애착회피보다 자살사고, 우울, 사회불안 등과 더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족 내 정서적 유대 결핍이 무력감, 우울/불안, 위축 등의 부적응 문제를 만들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청

소년 상담에 있어 가족 단위 개입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김영미, 2012; 채영이, 2006).

한편,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유아 애착에서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분리시키는 새로운 애착 관계의 변화를 맞게 되는 시기로 청소년의 애착은 부모의 일방 권위 중심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서 상호성으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또래 관계에서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해지는 시기로 유아기와 달리 청소년기의 부모 애착은 애착 대상에 대한 신체적 접근의 빈도와 강도가 감소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대상을 안전 기지로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애착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청소년의 사고, 감정, 행동 등에 영향을 준다(Kerns, Klepac, & Cole, 1996). 이는 Bowlby의 내적작동모델의 안정성을 말하고 있는데,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McCormick & Kennedy, 1994)에서 부모-아동의 애착의 질이 시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애착의 질과 자존감에 유의하게 관련되어진다는 것을 밝히며 부모-아동의 애착의 질이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애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 청소년기의 자기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관념을 최고의 가치라 생각하고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자아중심성(egocentrism)을 갖는다(Elkind, 1978). 이는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며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청소년의 자기애로 이해될 수 있는데, 청소년의 높은 자기애 성향과 낮

은 자존감은 병리적 우울과 관련이 크다(김효숙, 2012). Bibring(1953)은 강한 자아도취 및 자기애적 소망이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우면 이상과 현실의 지속적 괴리에서 우울이 생겨난다고 보았다(권석만, 2003에서 재인용). 이처럼 청소년 시기는 높은 자의식으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기 쉬우며, 자기 불일치를 경험하면서 우울감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양선미, 2008). 이러한 청소년 시기의 자기 확신의 부족은 자기를 과신하거나 취약한 자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대인관계에서 과도한 예민성을 보이는 자기애적 성향자들의 특징과 유사하며 특히 사회문화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하며 매스컴에 비치는 인물과 비슷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자기에 충족의 심리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이세연, 2007). 선행연구에서 높은 자기애는 우울을 높이고 자기 효능감을 낮아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혜진, 2003; 이상미, 2009), 청소년의 웅대성/칭찬과 주목에 대한 욕구와 자기중심성이 우울과 관련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김효숙, 2012; 양선미, 2008). 이처럼 자기애는 그 자체의 취약성과 과민성으로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며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주었고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심한 불일치감을 가져오면서 우울감을 높였다(한수정, 1999). 위 결과들은 애착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기애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reud(1953)가 자기애를 대상으로부터 퇴행된 병리적이고 미숙한 개념으로 보았던 것과

는 다르게, Kohut(1971, 1977)은 자기애를 평생에 걸쳐 계속되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인간 발달 과정으로 보았다(홍이화, 2011). 그리고 청소년 시기는 자기애 발달의 중요한 변화 시점(Kohut & Wolf, 1978)이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애 발달을 위한 성숙하고 적절한 자기대상의 추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건강한 자기구조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공감적인 자기대상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기대상으로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울(반영) 자기대상(mirroring selfobject), 대상과의 융합을 통해 약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불안한 느낌을 줄이고 싶어 하는 이상화 자기대상(idealization selfobject), 그리고 대상과 자신이 본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쌍둥이(제2의 나) 자기대상(twinship selfobject)이 있다. 이러한 자기애적 욕구들이 자기대상과의 공감적 경험들을 통해서 잘 충족될 때 응집력 있는 자기 구조가 세워지고 현실적인 목표, 건강한 포부, 자존감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형성된다. 그리고 건강한 이상과 가치, 스스로를 위로하고 긴장을 견딜 수 있는 내적 심리구조를 갖게 되고 이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재능과 기술이 촉진된다(홍이화, 2011).

그러나 공감적 자기대상 기능의 실패로 자기애적 상처가 생겨나 자기구조의 결핍으로 이어지면 병리적인 자기애가 나타나고 이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내적으로 무기력하고 과민하여 신체에 대한 건강염려증, 수치심, 혹은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증상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행

동적으로는 성도착이나 중독, 반사회적 비행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모두 약하고 결함이 있는 자기의 표현으로 잘 발달되지 못한 구조적 결핍을 메우고 회복하려는 방어적인 시도이다. 이처럼 자기대상기능의 실패로 인하여 형성된 자기는 대상을 갈망하거나 회피하는 병리적인 자기대상욕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홍이화, 2011). 자기대상욕구-갈망은 자기대상 경험에 대한 만성적이고 원시적인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탐색 행동을 하게 되는 마음 상태를, 자기대상욕구-회피는 자기대상 경험에 대한 방어적 회피 및 자기대상욕구를 부정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김미자, 정남운, 2008). 관련 연구를 보면 애착불안이 높을 때 자기대상욕구(갈망, 회피)가 높고 자기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는 의존적인 관계중독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애착회피가 높을 때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대상욕구-회피가 높아지고 자기대상욕구-갈망은 낮아졌다(이계선, 2013). 그리고 애착불안은 자기대상 추구에 대한 방식에 혼란을 가져오고, 애착회피는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거리를 두면서 자기대상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를 줄어뜨리게 하고 자기대상 경험을 감소하게 하여 심리적 역경 후의 성장을 어렵게 하였다(김태사, 2013). 또한 어머니의 높은 자기대상욕구-회피도 양육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서경, 2010).

김미자와 정남운(2008)의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불안, 회피)은 자기대상욕구-갈망과 자기대상욕구-회피를 모두 높이면서 자기대상욕구-갈망을 더 증가시켰다. 특히 애착불안은 애착회피보다 자기대상욕구-갈망 및 자기대상욕구-

회피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면서 자기 인정과 안정감 제공에 대한 갈망과 더불어 자기가치에 대한 의심으로 자기대상을 회피하게도 하며 우유부단과 관련되었다. 그리고 애착이 진로 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대상욕구-회피가 부분 매개하면서 특히 높은 자기대상욕구-회피는 대학생들의 책임 있는 선택과 주장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들은 높은 불안정 애착이 건강한 자기대상 경험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기대상욕구가 대인관계 및 진로, 양육 효능감, 성격특성 등과 연관되어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에 영향을 줄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자기대상욕구와 애착, 내재화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응집적인 자기구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자기대상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기대상 경험의 실패로 자기구조의 결핍이 생기면 병리적인 형태의 자기대상욕구가 생기고, 이는 청소년기의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부적응인 우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청소년의 자기대상욕구를 애착 및 내재화 문제(우울/불안, 위축)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이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제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내재화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애착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자기대상욕구를 매개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면서 상

담 장면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애착 및 내재화 문제와 자기대상욕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애착은 자기대상욕구를 매개로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설문은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고등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315부를 수거하였고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부를 제외하고 총 304명의 응답 결과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은 39.1%, 여학생은 60.9%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5.3%, 2학년 73.7%, 3학년 1.0%를 나타내었다.

2. 측정 도구

내재화 문제

Achenbach(1991)가 개발하고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와 하은혜(1997)가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 K-YSR)를 장덕희(2001)가 재구성한 문제행동 척도 중에서 송영희(2013)가 내재화

문제로 규정하여 사용한 우울/불안 9문항, 위축 5문항, 총 14문항을 활용하였다. K-YSR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각 항목은 5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 위축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송영희(2013)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우울/불안 .84, 위축 .79, 전체 .87로 나타났다.

애착 척도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로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발한 성인 애착 유형검사인 친밀관계경험-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Rivised, ECR-R)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착유형을 불안과 회피 두 차원으로 측정한다. Likert식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높고,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함을 나타낸다. 애착불안은 거절에 대한 공포와 유기에 대한 걱정을, 애착회피는 친밀함에 대한 회피와 타인과 가까워지거나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측정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애착불안이 .89, 애착회피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애착불안 .93, 애착회피 .89로 나타났다.

자기대상욕구

Banai, Mikulincer와 Shaver(2005)가 개발한 Selfobject Need Inventory(SONI)를 김미자(2009)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K-SON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공감적 자기대상 기능의 실패로 나타나는 병리적인 자기대상욕구-갈망

과 자기대상욕구-회피를 측정한다. 7점 Likert 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대상욕구-갈망이나 자기대상욕구-회피가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기대상욕구-갈망은 반영(거울자기), 이상화1(이상적인 대상이 나의 일부), 이상화2(가까이 있는 대상이 이상적인 대상이기를 원함), 제2의나(쌍둥이자기)이며, 자기대상욕구-회피는 반영(거울자기)회피, 이상화 회피, 제2의 나(쌍둥이자기) 회피이다. 김미자(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반영 .70, 이상화1 .82, 이상화2 .67, 제2의나 .72로 자기대상욕구-갈망 전체는 .87이며, 반영회피 .80, 이상화회피 .74, 제2의 나 회피 .86로 자기대상욕구-회피 전체는 .88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반영 .70, 이상화1 .76, 이상화2 .65, 제2의 나 .64로 자기대상욕구-갈망 전체는 .87이며, 반영회피 .80, 이상화 회피 .75, 제2의 나 회피 .83이며, 자기대상욕구-회피 전체는 .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에 의해 통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애착불안, 애착회피, 자기대상욕구-갈망, 자기대상욕구-회피,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대상욕구-갈망과 자기대상욕구-회피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어떤 변인이 매개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Baron & Kenny, 1986). 첫째, 예측변인(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예측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이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회귀분석에서 매개 변인을 추가할 때 예측변인의 β 계수가 유의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매개(full mediating), β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때는 부분매개(partial mediating)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넷째, 자기대상욕구-갈망과 자기대상욕구-회피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ab에 대한 Z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상관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r = .43, p < .01$), 애착불안과 자기대상욕구-갈망($r = .43, p < .01$), 애착불안과 자기대상욕구-회피($r = .58, p < .01$), 애착불안과 내재화 문제($r = .66, p < .01$), 애착회피와 자기대상욕구-회피($r = .47, p < .01$),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r = .44, p < .01$), 자기대상욕구-갈망과 내재화 문제($r = .20, p < .01$), 자기대상욕구-회피와 내재화 문제($r = .48, p < .01$)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1. 애착, 자기대상욕구, 내재화 문제의 상관행렬

(N = 304)

		애착 불안	애착 회피	자기대상욕구-갈망				자기대상욕구-회피				내재화 문제			
				반영	이상화 1	이상화 2	제2의 나	전체	반영 회피	이상화 회피	제2의 나 회피	전체	우울 불안	위축	전체
애착불안		1													
애착회피		.43**	1												
자기 대상 욕구- 갈망	반영	.54**	-.03	1											
	이상화1	.29**	-.16**	.56**	1										
	이상화2	.24**	-.17**	.53**	.60**	1									
	제2의나	.27**	-.22**	.53**	.43**	.50**	1								
	전체	.43**	-.18**	.82**	.84**	.79**	.74**	1							
자기 대상 욕구 회피	반영 회피	.38**	.44**	.20**	-.02	.01	.09	.08	1						
	이상화 회피	.53**	.36**	.34**	.33**	.16**	.18**	.33**	.60**	1					
	제2의나 회피	.57**	.40**	.35**	.32**	.19**	.05	.29**	.50**	.67**	1				
	전체	.58**	.47**	.35**	.24**	.15*	.12*	.27**	.82**	.87**	.86**	1			
내재화 문제	우울불안	.68**	.34**	.37**	.08	.14*	.23**	.25**	.34**	.33**	.38**	.41**	1		
	위축	.42**	.47**	.15**	-.04	.03	.07	.06	.51**	.30**	.34**	.45**	.55**	1	
	전체	.66**	.44**	.32**	.03	.12*	.19**	.20**	.46**	.36**	.41**	.48**	.93**	.81**	1
M		3.15	3.41	3.94	3.56	4.21	4.31	3.97	3.10	2.76	2.46	2.76	2.56	2.13	2.41
SD		1.01	.90	1.13	1.09	1.19	.99	.88	1.10	.99	1.03	.89	.69	.75	.63

* $p < .05$. ** $p < .01$.

한편, 애착회피와 자기대상욕구-갈망은 유의한 낮은 정도의 부적 상관($r = -.18$, $p < .01$)을 보였다. 이는 애착불안이 높을 때 자기대상욕구-갈망, 자기대상욕구-회피와 내재화 문제가 높아지고, 애착회피가 높을 때 자기대상욕구-회피, 내재화 문제는 높아지나 자기대상욕구-갈망은 낮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기대상욕구-갈망과 자기대상욕구-회피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자기대상욕구-갈망, 자기대상욕구-회피, 내재화 문제를 높이고, 자기대상욕구-회피가 자기대상욕구-갈

망보다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2.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욕구-갈망의 매개효과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욕구-갈망이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기본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VIF,

Tolerance 값을 구하였다. VIF는 1.22, 1.03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치 10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고, Tolerance는 .82, .97로 다중공선성 기준치 1에 근접하는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자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본 결과 1.81, 1.84로 가정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대상욕구-갈망이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나타내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표 2를 보면, 첫째 예측변인인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종속변인인 내재화 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애착불안 $\beta = .66, p < .001$, 애착회피 $\beta = .44, p < .001$), 둘째,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매개변인인 자기대상욕구-갈망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애착불안 $\beta = .43, p < .001$, 애착회피 $\beta = -.18, p < .01$). 마지막으로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자기대상욕구-갈망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β 계수가 유의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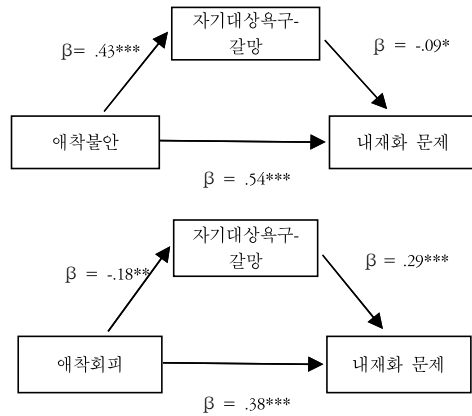
준으로 떨어졌으므로(애착불안 $\beta = .54, p < .001$, 애착회피 $\beta = .38, p < .00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대상욕구-갈망은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를 부분매개(partial mediating)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은 내재화 문제 변량의 44%를 설명하고 애착회피는 내재화 문제 변량의 19%를 설명하였다. 또한 애착불안과 자기대상욕구-갈망이 함께 포함한 모델은 내재화 문제 변량의 45%를 설명하였고, 애착회피와 자기대상욕구-갈망이 함께 포함한 모델은 내재화 문제 변량의 28%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대상욕구-갈망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대상욕구-갈망의 매개효과(또는 간접효과)는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자기대상욕구-갈망으로 가는 직접효과 $a(a')$ 와 자기대상욕구-갈망이 내재화 문제로 가는 직접효과 $b(b')$ 의 곱으로 정의된다. 보다 정확히 자기대상욕구-갈망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ab(a'b')$ 에 대

표 2. 자기대상욕구-갈망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단계	모형	B	SE	β	t	$R^2(Adj-R^2)$	ΔR^2
1	애착불안 → 내재화 문제	.32	.02	.66	15.35***	.44(.44)	
2	애착불안 → 자기대상욕구-갈망(a)	.33	.03	.43	8.20***	.18(.18)	
3	1) 애착불안 → 내재화 문제	.34	.02	.54	14.79***	.45(.44)	.01
	2) 자기대상욕구-갈망 → 내재화 문제(b)	-.06	.03	-.09	-1.98*		
1	애착회피 → 내재화 문제	.24	.03	.44	8.53***	.19(.19)	
2	애착회피 → 자기대상욕구-갈망(a')	-.16	.05	-.18	-3.15**	.03(.03)	
3	1) 애착회피 → 내재화 문제	.27	.03	.38	9.90***	.28(.27)	.08
	2) 자기대상욕구-갈망 → 내재화 문제(b')	.18	.03	.29	5.87***		

* $p < .05$.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욕구-갈망의 매개효과

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Z는 아래의 식을 통해 구해지며(Oksoy & Aroian, 1994). 이 식에서 SE_a 는 a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Z검증에서 ab에 대한 표준오차를 구하는 몇 가지 공식 중 아래의 공식은 Aroian 공식(Oksoy & Aroian, 1994) 또는 변형된 Sobel공식(Baron & Kenny, 1986)이라고 한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표 2에 제시된 a(a'), b(b'),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Z_{ab}=1.97$, $Z_{a'b'}=2.82$ 로 임계치 1.96 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는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즉 경로 a(a')와 b(b')가 유의미하고, 매개효과 ab(a'b')가 유의미하므로 연구에서 매개모형이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부적응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욕구-갈망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내재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대상욕구-갈망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

3.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욕구-회피의 매개효과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욕구-회피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Baron과 Kenny (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기본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VIF, Tolerance 값을 구하였다. VIF는 1.52, 1.29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치 10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고, Tolerance는 .66, .77로 다중공선성 기준치 .1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자 Durbin-Watson 계수를 살펴본 결과 1.80, 1.84로 가정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대상욕구-회피가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나타내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표 3을 보면, 첫째 예측변인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종속변인인 내재화 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애착불안 $\beta = .66$, $p < .001$, 애착회피 $\beta = .44$, $p < .001$), 둘째,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매개변인인 자기대상욕구-회피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애착불안 $\beta = .59$, $p < .001$, 애착회피 $\beta = .48$, $p < .01$). 마지막으로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자기대상욕구-회피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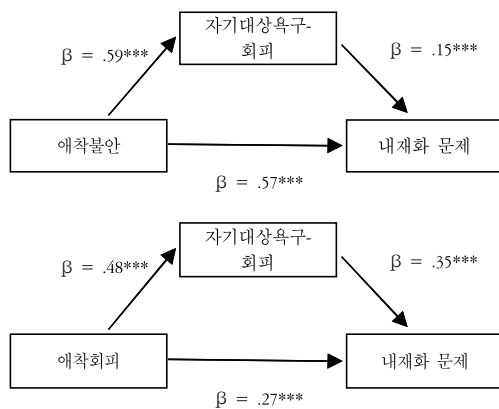
표 3. 자기대상욕구-회피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단계	모형	B	SE	β	t	$R^2(Adj-R^2)$	ΔR^2
1	애착불안 → 내재화 문제	.32	.02	.66	15.35***	.44(.44)	
2	애착불안 → 자기대상욕구-회피(a)	.54	.04	.59	12.51***	.34(.34)	
3	1) 애착불안 → 내재화 문제	.28	.03	.57	10.90***	.45(.45)	.02
	2) 자기대상욕구-회피 → 내재화 문제(b)	.08	.03	.15	2.87**		
1	애착회피 → 내재화 문제	.24	.03	.44	8.53***	.19(.19)	
2	애착회피 → 자기대상욕구-회피(a')	.49	.05	.48	9.39***	.23(.22)	
3	1) 애착회피 → 내재화 문제	.15	.03	.27	4.95***	.29(.29)	.10
	2) 자기대상욕구-회피 → 내재화 문제(b')	.19	.03	.35	6.41***		

** $p < .01$. *** $p < .001$.

착불안, 애착회피의 β 계수가 유의미 수준으로 떨어졌으므로(애착불안 $\beta = .57$, $p < .001$, 애착회피 $\beta = .27$, $p < .001$),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대상욕구-회피는 애착불안, 애착 회피와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를 부분매개(partial mediating)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은 내재화 문제 변량의 44%를 설



** $p < .01$. *** $p < .001$.

그림 2.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욕구-회피의 매개효과

명하고, 애착회피는 내재화 문제 변량의 19%를 설명하였다. 또한 애착불안과 자기대상욕구-회피가 함께 포함한 모형은 내재화 문제 변량의 45%를 설명하였고, 애착회피와 자기대상욕구-회피가 함께 포함한 모형은 내재화 문제 변량의 29%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대상욕구-회피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대상욕구-회피의 매개효과(또는 간접효과)는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자기대상욕구-회피로 가는 직접효과 $a(a')$ 와 자기대상욕구-회피가 내재화 문제로 가는 직접효과 $b(b')$ 의 곱으로 정의된다. 보다 정확히 자기대상욕구-회피의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ab(a'b')$ 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a(a')$, $b(b')$, 추정치를 이용해 구한 $Z_{ab}=2.62$, $Z_{a'b'}=5.32$ 로 임계치 1.96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 는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즉 경로 a와 b가 유의미하고, 매개효과 ab가 유의미하므로 연구에서 매개모형이 지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욕구-회피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내재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대상욕구-회피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불안, 회피), 자기대상욕구(갈망, 회피), 내재화 문제(우울/불안, 위축)의 관계를 알아보고, 애착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자기대상욕구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애착불안과 자기대상욕구-갈망, 애착불안과 자기대상욕구-회피, 애착불안과 내재화 문제, 애착회피와 자기대상욕구-회피,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는 정적상관을 보였고, 애착회피와 자기대상욕구-갈망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애착불안은 애착회피보다 자기대상욕구, 내재화 문제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자기대상욕구-갈망과 자기대상욕구-회피, 자기대상욕구-갈망과 내재화 문제, 자기대상욕구-회피와 내재화 문제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자기대상욕구-회피는 자기대상욕구-갈망보다 내재화 문제와 더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애착불안

이 높을 때 자기대상욕구-갈망, 자기대상욕구-회피와 내재화 문제가 높아지고, 애착회피가 높을 때 자기대상욕구-회피와 내재화 문제는 높아지나 자기대상욕구-갈망은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기대상욕구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아지고, 자기대상욕구-회피가 자기대상욕구-갈망보다 내재화 문제와 더 관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착불안이 자기대상욕구-갈망과 자기대상욕구-회피, 내재화 문제를 모두 높인다는 결과는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애착불안이 또래 및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청소년기에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을 만들면서 우울/불안, 위축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애착회피가 자기대상욕구-갈망을 낮아지게 하고 자기대상욕구-회피와 내재화 문제를 높인다는 결과는 타인과 가까워지거나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을 반영하는 애착회피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한 갈망과 접근을 회피하게 하면서 필요한 자기대상 경험을 어렵게 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이 결과들은 불안정 애착(불안, 회피)이 자기대상욕구-갈망과 자기대상욕구-회피를 증가시키고,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자기대상욕구-갈망과 자기대상욕구-회피와 더 큰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김미자, 정남운,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애착불안이 자기대상욕구-갈망과 자기대상욕구-회피를 모두 높이는 것은 일치하였으나, 애착회피가 자기대상욕구-회피는 높이지만 자기대상욕구-갈망은 낮춘다는 결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처럼 애착회피가 자기대상욕구-회피는 높이지만 자기대상욕구-

갈망은 낮춘다는 결과는 애착회피가 높을 때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대상욕구-갈망은 낮아지고 자기대상욕구-회피는 높아진다는 연구(이계선, 2013)와 애착불안은 자기대상 추구에 대한 방식에 혼란을 가져오지만, 애착회피는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거리를 두면서 자기대상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를 줄어 들게 하고 자기대상 경험을 감소하게 하여 심리적 역경 후의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연구(김태사, 2013)등과 같이 이해 될 수 있다. 그리고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내재화 문제와 더 큰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는 대학생의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자살사고, 우울, 사회불안 등과 더 상관이 높다는 연구(이혜진, 2013)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경우에 양육자가 안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게 되고 과민하게 자주 불안을 경험하는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여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채영이, 2006)와 같게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대상욕구-회피가 자기대상욕구-갈망보다 내재화 문제와 더 큰 상관을 보이는 결과는 자기대상욕구-회피가 강해지면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과 주장을 어렵게 한다는 연구(김미자, 정남운, 2008)와 맥락을 같이 하여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자기대상욕구-갈망이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를 부분 매개(partial mediating)하고, 자기대상욕구-회피가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정 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내재화 문제(우울/불안,

위축)의 관계에서 자기대상욕구(갈망, 회피)가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자기대상욕구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주요한 요인임을 말해주며,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불안정 애착이 청소년의 자기대상욕구-갈망과 자기대상욕구-회피를 높이고 개인의 정서적 자기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우울/불안,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응집적인 자기 형성을 위한 긍정적인 청소년의 자기대상 경험이 어렵게 되면 청소년기의 자기개념과 학업수행, 또래관계 등에 우울/불안, 위축을 가져오면서 여러 문제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결과는 자기대상욕구와 함께 청소년기의 애착이 청소년의 우울/불안, 위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애착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안전 기지로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청소년의 사고, 감정, 행동 등에 영향을 주게 됨을 말한 연구(Kerns et al., 1996)와 Bowlby의 내적작동모델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던 연구(McCormick & Kennedy, 1994)들을 경험적으로 지지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청소년기를 자기에 발달의 중요한 변환시점(Kohut & Wolf, 1978)으로 보고 응집적인 자기구조의 구축을 위해, 부모의 적절한 공감을 통한 자기대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적응적인 자기에발달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가지각과 높은 자아 존중감, 정서적 안정감과 연결된다(Klein, 1995)는 이론을 확인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위한 주 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과 지속적인 자기대상 경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이

는 청소년의 자기대상욕구에 대한 접근이 청소년의 우울/불안, 위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내며,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다루는데 청소년의 자기대상욕구와 애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상담 장면에서 청소년의 자기대상욕구와 애착 유형을 파악하고 결핍된 자기대상 경험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응집적인 자기형성을 돕는 것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다루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과 더불어 불안정 애착의 경우에는 주 양육자와의 의사소통 및 관계를 다루어 청소년에게 필요한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밝힌 것처럼 자기대상욕구가 애착과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짐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에 필요한 자기대상 경험과 청소년기에도 안전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린 시절의 애착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청소년기의 내재화 문제에 따른 문제들의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청소년 304명을 대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지역의 더 많은 수의 표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년 별 고른 표집을 이루어 애착과 내재화 문제, 자기대상욕구에

대한 학년 별 차이를 확인하고 더불어 성별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자기대상욕구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은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자기이해 부분에 대한 보고가 다양하게 나타나 연구결과 및 해석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자기보고식이 아닌 관찰이나 면접에 의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애착이 자기대상욕구를 매개로하여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결핍된 자기대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우울/불안, 위축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가정 및 학교, 사회가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기대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미자 (2009). 내담자의 자기대상 욕구와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자, 정남운 (2008). 진로미결정과 애착, 자기대상욕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3), 229-249.
- 김성현 (2004).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

- 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 (2011). 청소년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2011). 이웃환경과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관계: 가족과정의 매개효과와 성별간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18(11), 209-237.
- 김영미 (2012).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47-73.
- 김유진 (2009).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오경자 (1992).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및 청소년기 우울증상.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1), 117-128.
- 김태사 (2013). 불안정 성인애착이 역경을 통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대상과 정신화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숙 (2012). 청소년 자기애 성향과 우울 및 자존감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진 (2003). 자기애, 자기효능감 및 우울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희 (2013). 아동기 외상 및 역기능적 양육 행동이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역할.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혜원 (1999). 청소년기 반발심과 문제행동 및 우울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선미 (2008). 청소년들의 자기애 성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척도(K-CBCL).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경자, 강지현, 하은혜, 송동호 (2004).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1, 379-380.
- 유한익 (2004). 부모의 애착유형과 아동의 정신병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선 (2013). 성인애착과 관계중독의 관계: 자기대상욕구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미 (2009). 내현적자기애와 청소년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경 (2010). 어머니의 자기대상욕구와 양육효능감 및 자녀의 대인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연 (2007).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 (2001). 청소년의 애착상태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은 (2003).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질적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2011).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

- 문제와 부모양육행동의 상호적 인과관계: 부모효과 및 아동효과의 검증. *한국인간발달연구*, 18(1), 21-41.
- 이혜진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심리적부적응의 관계에서 통제노력의 조절효과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덕희 (2001). 가정폭력 경험 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혜수 (2011). 초기 청소년의 모 애착, 또래애착 및 자기개념에 따른 자기 비판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영이 (2006). 중학생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이화 (2011). 하인즈 코헷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1.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anai, E., Mikulincer, M., & Shaver, P. R. (2005). "Selfobject" needs in Kohut's self psychology: Links with attachment, self-cohesion, affect regulation and adjustment. *Psychoanalytic Psychology*, 22(2), 224-26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 A. T. (2000).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Harper Perennial.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Elkind, D. (1978). Understanding the young adolescent. *Adolescence* 13(49), 127-134.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
- Freud, S.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Kerns, K. A., Klepac, L., & Cole, A.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3), 457.
- Klein, H. A. (1995). Self-perception in Late Adolescence: An Interactive perspective. *Adolescence*, 30, 579-591.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 Wolf, E. S. (1978). The disorders of self and their treatment: an outline (in essential papers on narcissism),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9, 175-196.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Oksoy, D., & Aroian, L. A. (1994). The quotient of two correlated normal variables with applications. *Communications in Statistics Simulation and Computation*, 23(1), 223-241.
- 1 차원고접수 : 2015. 01. 14.
수정원고접수 : 2015. 02. 12.
최종게재결정 : 2015. 03. 03.

The Effect of Attachment on Adolescent Internalizing Problems: Mediating Effects of Selfobject Needs

Shin, Moon-Hyea

Lee, Jee-Yon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object needs in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problems. 304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The data were processed by SPSS WIN 18.0.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ttachment anxie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object hunger, selfobject avoidance and internalizing problems. The attachment avoida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object avoidance and internalizing problems, but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object hunger. This means that higher attachment anxiety becomes higher possibility for higher selfobject needs and higher internalizing problems, and higher attachment avoidance becomes higher possibility for higher selfobject avoidance, internalizing problems and lower selfobject hunger. In addition, selfobject need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s and the higher selfobject needs resulted in higher internalizing problems. Second, as a result of the Baron and Kenny's (1986) three-step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pproach, the effect of attachment to internalizing problems was partly mediated by selfobject needs. These results imply that internalizing problems can be influenced by selfobject needs and attachment. Also, insecure attachment led to the avoidance of necessary selfobject experience in adolescents. Therefore, counselors should consider the adolescents' selfobject needs and attachment to help them recover from the internalizing problems.

Keywords: attachment, selfobject needs, internalizing problems, depression, adolescents